

## 19. 추가 연구 과제: 사무라이와 지배계급

### (1) 무가 정권의 등장

4세기 말에 호무다에 의해 세워진 야마토 왕국은, 9세기 초 이후부터 노쇠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10세기 초 이후부터 급속도로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 일찍이 나카토미 씨족의 카마타리(鎌足: 614-669년)는, 소가 씨족을 제거하고 텐지의 등극을 실현한 공으로, 후지와라 라는 성을 하사받았었다. 그의 후손인 후지와라 요시후사(藤原良房: 804-972년)는, 외척의 지위를 공고히 하여, 9세기 중반인 858년부터 섭정을 시작했다. 야마토 왕실의 몰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후지와라 가문은, 1167년에 타이라 키요모리(平清盛, 1118-81년)가 태정대신으로 등장할 무렵까지, 중앙에서 전권을 휘둘렀었다. 타이라 키요모리는 미나모토 요시토모(源義朝: 1123-60년)를 무찌르고 정권을 장악 했다.

일찍이 814년에 사가(嵯峨)는, 왕실의 분가 형식으로, 자신의 자녀들 50명 중 33명에게 미나모토(源)라는 성씨를 만들어 주었다. 예컨대 일본삼대실록의 세이와 조오간 5년(863년) 조에 의하면, 대납언(大納言) 정3위 겸 우근위대장(右近衛大將) “미나모토” 아소미(源朝臣) 조오(定)는 사가의 아들인데 모친은 백제왕씨(百濟王氏)라 한다. 825년, 칸무(桓武)는 자신의 손자를 타이라(平)라는 성씨로 분가를 해서, 헤이케(平家)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최초의 사가 겐지(源氏)에 추가해서, 그 근원을 세이와(清和), 우다(宇多), 무라카미(村上) 등에 추적할 수 있는 미나모토 가계들이 있다. 수도 헤이안 교오 로부터 멀리 떨어진 카마쿠라(鎌倉)에 막부(1192-1333년)를 세운 미나모토 요리토모(源頼朝) 뿐만 아니라, 무로마치 막부(1338-1573년)를 세운 아시카가 타카우지(足利尊氏)도 세이와 겐지를 조

상으로 한다. 에도 막부(1603-1867년)를 세운 토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는 자신의 조상이 미나모토 가문에서 나온 것처럼 만들려고 했다.

## (2) 사무라이와 지배계급

9세기 말 이후, 지배계급이 전반적으로 부패하고, 중앙정부가 무력하게 되면서, 지방에는 도적 떼들이 창궐했다. 치안의 부재 상태에서, 야요이 시대부터 논농사를 주업으로 해 온 “토착” 농민들은,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무장을 하고, 자신의 집과 마을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만 했다.

정치가 문란하고, 도적이 횡행하고, 살인과 방화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극도로 불안하고 참혹한 현세를 벗어나 보려는 백성들의 염원 속에, 내세에서의 극락정토 왕생을 설교하는 정토교(淨土敎)가, 불법이 완전히 쇠멸한다는 말법사상과 어울려,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암담한 현실은, 내세에서나마 구원을 바라는 심정으로, 사람들이 정토교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제 내가 추가 연구 과제라고 생각하는 가설을 소개한다. 각 고을마다 무장한 농민자위대가 자연발생적으로 출현했다. 중앙을 떠나 지방에 정착 하게 된 귀족들은 이들 무장 농민들에 의존하게 되었다. 지방 귀족들은 무장농민들과 제휴함으로써,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전 할 수 있었다. 동시에, 후자는 지방의 귀족들과 제휴함으로써 합법적인 존재가 될 수 있었다. 즉 무장 농민은 무장한 폭도가 아니라 합법적인 무력 집단이 되는 것이다. 중앙정부도, 전통적인 군사조직이 와해되고 지배계급이 부패한 생활로 나약해지자, 무장한 농민집단에 의존해서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민중봉기를 진압하려 했다.

초기에는, 소요 사태가 발생했을 때, 농민들이 일시적으로 무장을 하고 싸움을 하다가, 싸움이 끝나면 본연의 농사 일로 복귀를 하는 형태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기를 다루고 싸움을 하는데 특출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을 중심으로, 반영구적인 무사 집단이 나타나게 되었다. 즉, 자연 발생적으로, 직능적인 특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지방의 일반 농민들과 지방에 정착한 귀족계급은 물론이고, 중앙정부와 중앙의 귀족 지배계급마저, 이들 농민출신의 무사 집단에 점차 의존하게 되었다. 이들 무사단의 규모가 커지면서, 귀족출신의 인물을 단위 조직의 지도자로 모시는 경우가 많았다. 농민 출신의 싸움꾼들이 영구적인 무사단으로 조직되자, 당시의 지배층은 이 무사단을, 자신들을 모시는 사무라이(侍)로 이용하려 했다.

결과적으로, 무장한 농민 출신의 전문화된 싸움꾼, 즉 사무라이(侍)가 야마토 왕국 내에서의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농민 계급이란, 야마토 왕국의 밑바닥 계층으로서, 수백 년 동안 백제계 지배층을 먹여 살려 왔던 존재이었다. 이 농민 계급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나라 안의 무력을 장악하게 된 것이다. 이들 집단의 무식하고 미천한 근본은, 화려한 귀족가문 출신의 지도자를 전면에 내 세움으로서, 가려질 수 있었다. 무사단의 동량(棟梁) 노릇을 한 미나모토씨(源氏)나 타이라씨(平氏) 등은 왕족 출신으로 지방에 내려와 정착을 하게 된 국사(國司)들의 후예이다.

1192년부터 등장하는 막부(幕府)의 쇼오군(征夷大將軍)은 전국 각지에 무장들을 다이묘(大名)로 임명하여 해당 지역을 무력으로 통치하도록 했다. 세월은 흐르고, 일본사회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계급은, 무력을 손에 쥔 사무라이로 모두 대체되었다. 천황이나 귀족들은, 이들 실권자의 미천한 근본을 가려주는, 형식상의 지배자로 전락했다. 설사 무사 정권의 정상에 왕족 출신의 쇼오군이 군림하더라도, 권력의 몸통은 실제로 칼자루를 쥔 사무라이 계급이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발전과정은, 대다수의 일본 사학자들이 정설로서 받아들이는 내용과는 다르기 때문에, 공감을 하는 누구인가가 좀 연구를 본격적으로 해 주기를 바란다. 일본 사학계의 “정설”은, 비록 천황가의 실권은 상실되었지만, 또 사회적인 혼란기에 (야마토 왕국의 전통적 피지배층인) 농민계급 출신이 새로운 지배층에 편입이 되기

도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옛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지배층이 일본사회의 새로운 지배층인 무사계급으로 변신을 했다는 것이다. 즉, 언제나 그러하듯, 태고 적부터 일본 사회에서 지배계급의 본질적인 변화는 없었고,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이다.

### (3) 한국 사람과 일본사람 사이의 적대적인 감정

고대 한일관계를 연구하면서 자연스럽게 당면하게 되는 의문이 또 하나 있다. 일찍이 기원전 300년경부터 서기 300년 경까지 600여 년간 일본열도에 건너와, 아이누와 말라요-폴리네시아인 선주민들과 어울려 농농사를 짓는 야요이 시대를 전개한 주인공은 바로 삼한사람들, 특히 변한의 가야 사람들이었다. 또 4세기 말에 야마토 왕국을 세운 것은 백제 사람들이었고, 천황가의 근본은 백제 왕실이었다. 그렇다면, 어쩌서 오늘날의 한일 양 국민간의 감정이 그토록 좋지 않을 까하는 의문이 생긴다. 나는 그 해답의 실마리를 앵글로-색슨 잉글리쉬와 저어먼의 관계에서도 발견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인 강과 덴마악 사이에 위치한 앵글과 색슨 지역의 농민들이, 바다를 건너 켈트족을 쫓아내고, 잉글랜드를 점령한 것은 5세기 말경이었다. 당시 브리티쉬 열도의 소위 “토착” 원주민이라고 볼 수 있는 켈트족은 웨일스, 코온월, 스칼트랜드, 아이어랜드 등으로 밀려났다. (중부 유유럽에 살던 켈트족이 대거 잉글랜드로 건너 온 것은 고작 기원전 2-3세기 경 이었다.)

한반도 남부의 삼한(주로 가야) 사람들이, 쇼오몬 시대의 주인공인 아이누와 말라요-폴리네시아인 선주민들과 어울려, 농농사 야요이 시대를 시작한 것은 기원전 300년 경이다. 혼혈로 융합이 되기를 거부하고 순수한 혈통을 고집하는 아이누 측은 계속 혼슈우의 동북쪽으로 밀려났고, 또 융합을 거부하는 말라요-폴리네시아인 측은 큐우슈우 남서부 구석으로 몰렸다. 600여 년이라는 기간을 경과하면서, 한반도에서 도래한 삼한(가야) 사람들은, 융합을 거부하지 않는 아이누와

말라요 폴리네시아인 종족들과 어울려 큐우슈우의 북부와 혼슈우의 서부를 지배하면서 일본어의 조어를 공유하는 “토착” 원주민을 형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일본어의 조어를 공유하는 원(原)일본인이 결코 죠오몬 시대에 형성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본열도의 서부와 북부 연안에서부터 야요이 시대를 전개한 삼한(가야)사람들이, 새삼 일본열도의 “토착 원주민”이란 존재가 되어, 백제사람들에게 정복을 당한 것이 4세기 후반이다. 애당초 백제 왕국의 지배층은, 기원전 18년경에 부여-고구려 지역으로부터 남하하여 한강 유역의 마한 땅에 정착을 한 후, 4세기 중반에 이르러 한반도 남서부의 마한 땅을 모두 지배하게 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중국 사서들은 백제가 마한의 뒤를 이은 나라라고 기록을 한다.

야마토 왕국을 건설한 후, 백제 사람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한반도의 백제와 아주 밀착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백제는 663년에 당나라와 제휴한 신라에게 멸망되었다. 고구려 또한 668년에 멸망되었다. 이제 야마토 왕실은, 숙적인 신라 손에 통일된 한반도와 인연을 끊고, 일본열도와 운명을 같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애당초 야요이 일본열도의 소위 “토착” 농민 계급이라는 것도 그 주류가 한반도에서 건너온 가야 사람들이었고, 고분시대를 전개한 야마토 왕국의 지배계급도 한반도에서 건너온 백제사람들인데, 어째서 오늘날 한국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이 그토록 상호 감정이 좋지 않을 까? 이 질문의 해답을 찾으려면, 앵글로-색슨 잉글리쉬와 저어먼 사람들이, 20세기에 들어와, 서로의 생사를 걸고 두 차례나 세계대전을 치렀다는 사실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처어칠은 야만적인 히틀러로부터 문명세계를 수호한 전쟁영웅이 된 것이다.

짐승들의 세계를 한번 보자. 원숭이가 까치를 보고 자신의 생존을 위태롭게 할 경쟁상대로 생각하거나 적개심을 가지게 될 이유가 없다. 하지만 동일한 원숭이 무리들 사이에서는, 생활 영역이 같고, 주거 방식이 같고, 먹이가 같고, 한 무리의 자손들이 번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리가 없어야 한다는 지로 섬 게임(Zero-Sum Game)적인 사고가 지배

하기 때문에, 종족보존 본능 그 자체가 곧바로 적개심을 극대화 시키고, 치열한 생존경쟁이 벌어지게 된다. 1억 년 전부터 지구상에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환경적응의 천재 개미의 경우도, 가장 무서운 천적은 바로 주변에 사는 다른 개미들의 집단이다.

저어머니의 앵글과 썩슨 땅에서 농사를 짓다가 5세기경에 바다를 건너 잉글랜드로 건너온 사람들의 후손인 현대 잉글리시 사람들이 현대 저어머니 사람들과 그토록 감정이 안 좋다면, 기원전 300년경부터 바다를 건너 일본열도에 정착하기 시작한 변한(가야) 사람들과 4세기 후반에 야마토 왕국을 세운 백제 사람들의 후손들로 구성된 현대 일본인과 한반도의 현대 한국 사람들이 그토록 상호 감정이 안 좋은 것도, 별로 특이한 사실이 아닐 것이다.

앵글로-썩슨 잉글리시와 프렌취 (혹은 덴마아크)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시 한번 살펴보자. 5세기에 잉글랜드를 점령한 앵글로-썩슨 족이 노어만-프렌취 족에게 정복을 당한 것은 11세기 후반이다. 그런데 소위 노어만-프렌취 족이란, 900년경에 프랑스의 노어만디 땅을 점거해 정착을 한, 대니쉬 바이킹 족을 말한다. 이 대니쉬 바이킹들은 200년도 안 되는 기간에 완전히 프랑스 화가 되었다. 그래서 자신들을 바이킹이라고 부르지 않고, 노어만-프렌취 라고 불렀던 것이다.

일찍이, 잉글랜드를 정복한 노어만 왕족들은 한동안 노어만디 땅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었다. 그러다가, 급기야 파리에 근거를 둔 프랑스 왕에게 프랑스에 가지고 있던 영토를 모두 빼앗겼다. 노어만 왕실과 귀족들에게 남은 땅이란 잉글랜드 뿐 이었다. 마침내 노어만-프렌취 지배계급은 잉글랜드 땅의 앵글로-썩슨 잉글리시와 운명을 같이하게 되었다. 하지만 오늘날 영국 사람들과 프랑스 사람들 혹은 (노어만 프렌취의 근본인) “대니쉬 바이킹” 의 후손인 덴마아크 사람들 사이에 특별한 친근 관계도 없는 것이다. 잉글랜드와 프랑스는 19세기 초에 나폴레옹 전쟁도 했지만, 일찍이 1337년부터 1453년까지 이미 대판으로 싸움을 했었고, 바로 장 다아크가 이 백년전쟁 때 조국을 위기에서 구한 프랑스의

영웅이며 성인인 것이다. 잉글리쉬와 저어먼 사이의 관계에 비교해 보면 아주 양반이지만, 잉글리쉬와 프렌치도 항상 상대방을 비하하고 멸시하며 살고 있다.

옛부터 내려오는 야마토 왕국의 백제계 지배계급 뿐 아니라, 새로 대두한 지배계급인 농민출신 무사계급도, 구태여 백제계통 사람과 신라계통 사람을 가려가며, 한국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친근감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것이다.

백제계 지배층은 오직 한반도의 신라와 불구대천의 원수 관계였다. 하지만 10세기 이후에 새로이 등장한 농민출신의 지배계급은, 백제이건 신라이건, 한반도 사람 전체와 적대 관계가 될 수 있다. 이미 그들 조상이 한반도의 삼한지역을 떠나 온지가 짧게는 700년, 길게는 1300년이 넘기 때문에,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변신한 이들이, 당시 한국 사람들에게 특별히 호감을 가질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마음에 내키지 않는 백제계 귀족출신들을 요소요소에 우두머리로 내세웠다고 해서, 농민출신 무사계급이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가지게 되는 것도 아닐 것이다.

Chapter 20 begins at 505.